

유해진 “진정성에 통쾌함까지... 바위같은 영화”



봉오동전투

조국 위해 희생한 독립군 이야기
일본군 상대로 처음 승리한 전투
조우진·류준열 출연... 8월 개봉

원신연 감독 “아름 아닌 승리의 역사 보여주고 싶어”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처음 승리한 봉오동전투가 스크린에 재현된다.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다.

3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유해진은 ‘봉오동 전투’에 대해 “기교보다는 진정성이 있는 바위 같은 영화다”며 “통쾌함도 묻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가 “한 영웅을 그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름이 잊힌,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군의 이야기를 그린다”고 덧붙였다.

유해진은 ‘항일대도’를 가지고 다니며 민첩한 몸놀림과 대범함으로 일본군의 목을 거침없이 베는 독립군 황해철, 배우 류준열은 황해철이 친동생처럼 아끼는 독립군 분대장 이장하를 각각 연기했다. 조우진은 황해철의 오른팔인 마적 출신의 저격수 마병구를 맡았다.

류준열은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임했다”며 “실존 인물들을 캐릭터로 만들었고, 또 중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것도 의미가 컸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우진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냉정(황해철)과 열정(이장하) 사이의 인물이다”며 “작품에서 중심을 잡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죽임의 골짜기까지 유인해 승리를 쟁취했던 까닭에, 영화 촬영 대부분은 산에서 진행됐다.

배우들은 끊임없이 뛰고 여러 액션 장면도 소화했다. 유해진은 몸에 부착하는 보디캠을 사용해 액션 장면을 찍고, 류준열은 와이어 액션 연기에 도전했다.

유해진은 “정말 원 없이 뛰었다. 전력 질주했

다”며 “산이러서 바닥을 보고 뛰어야 하는데, 또 카메라를 봐야 해서 조심스럽긴 했다”고 돌아봤다.

조우진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등산화를 처음 샀다. 산을 이렇게나 많이 오를 작품은 처음이었다”며 “유해진 형님의 운동량이 엄청나고 달리기도 빨랐다”고 말했다.

류준열은 “유해진 선배는 전력 질주하지 않았다. 전력으로 질주하면 카메라와 동료 배우들이 따라가질 못했다”며 “다들 이를 악물고 뛰는데, (유해진은) 뒷집 지고 먼 산 보면서 온다”고 웃었다.

봉오동과 유사한 곳을 찾기 위해 로케이션에만 15개월 넘는 시간을 투자했고, 촌민들의 생활을 재현하기 위해 실제 3만3057㎡(1만평)의 땅에 미술팀이 4개월 동안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

‘세븐 데이즈’(2007), ‘용의자’(2013), ‘살인자의 기억법’(2017) 등을 연출한 원신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원 감독의 첫 사극 도전이다.

원신연 감독은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에 관한 영화들이 아픔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봉오동 전투’는 승리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신문 등 사료와 자료 등을 통해 집요하게 고증했다”며 “당시 일본군을 유인해서 승리를 이뤘던 사람들이 일반 평민·촌민이었다. 모두가 모인 모두의 전투였고, 그 최초의 승리가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슈퍼주니어, 아시아 가수 최초 사우디 단독 콘서트



그들 슈퍼주니어가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3일 소속사 레이블SJ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오는 12일 오후 7시(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 제다에 있는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King Abdullah Sports City)에서 월드투어 ‘슈퍼쇼 7S’을 펼친다.

슈퍼주니어는 팝의 여왕 머라이어 캐리,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에 이어 한국은 물론 아시아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펼친다는 것이 레이블SJ 설명이다.

또 완전체 공연 다음 날인 13일에는 슈퍼주니어-D&E, 슈퍼주니어-K.R.Y가 ‘제다 시즌 페스티벌’(Jeddah Season Festival) 무대에도 올라 개성 넘치는 유닛(소그룹) 무대를 선보인다.

‘제다 시즌 페스티벌’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다 전역에서 40여일에 걸쳐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페스티벌로, 아랍 최고 스타는 물론 팝 그룹 백스트리트보이즈 등이 참석한다.

레이블SJ는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에 국빈 방문한 뒤 양국 교류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슈퍼주니어 제다 콘서트 양국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애의 맛’ 2호커플 오창석-이채은... 야구장서 공개 프리포즈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예능 ‘연애의 맛’ 공식 2호 커플이 2일 탄생했다. ‘연애의 맛’에 출연 중인 배우 오창석(37)과 이채은(24) 씨는 이날 잠실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 경기에 시구자와 시타자로 각각 나섰다.

오창석은 관중 앞에서 이채은에게 공개 프리포즈를 했고, 이채은이 이를 받아들여면서 정식으로 연인이 됐다. 이 과정은 ‘연애의 맛’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연애의 맛’을 통해 배우 이필모-서수연이 연인이 되고, 결혼에도 골인한 만큼 2호 커플인 오창석-이채은도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전국시대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봄(재)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40 SBS 뉴스 5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UHD 스테이지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토크콘서트 화통 스페셜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콩도령 2		25 푸리가 식자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재) 55 이몽(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뒤뚱뚱 뽀그인 코리아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연중 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쇼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브24 55 제보자들	55 봄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절대 그이
[11]	35 UHD 스테이지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05:30 통일의 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다큐동화 달팽이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7:15 띠띠뽀 띠띠뽀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40 다큐 시선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4:30 띠띠뽀 띠띠뽀(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덩동댕 유치원1~2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내 인생의 오아시스 중앙아시아 4부 봄의 땅 카자흐스탄>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15:00 탐험 구조대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시골달인 4부 소문 듣고 왔습니다>
09:00 마사와 곰	15:45 꼬마하어로 슈퍼잭(재)	21:50 다큐 시선
09:30 물랑	16:00 예술아 놀자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덩동댕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차례대로 실행했을 때 더 생산적이니라. 48년생 협힘이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다. 60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면모이다. 72년생 운로가 갈라니 왕성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84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81, 92</p> <p>37년생 세태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49년생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 61년생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73년생 찬스란 얻기는 어려우나 놓치기는 쉬운 법이다. 85년생 차분히 살펴 보고 판단해도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88</p> <p>38년생 응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도 필요 하다. 50년생 기대할만한 성과를 거둔다. 62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니라. 74년생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임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86년생 면밀히 점검한 후에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35, 90</p> <p>39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 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51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3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자. 75년생 실행당 속에 묻혀있는 진주가 보인다. 87년생 탄력을 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8, 33</p> <p>40년생 생소하다고 해서 굳이 경계할 이유까지는 없다. 52년생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이 강한 추진력을 갖게 하리라. 64년생 새움지마오. 전화위복의 이치로다. 76년생 형식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갖춰야겠다. 88년생 처음과 대동소이하다. 행운의 숫자 : 01, 68</p> <p>41년생 요령 없는 대응은 보잘 것 없는 결과를 낳고야 말 것이다. 53년생 변화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65년생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파격이 아쉽다. 77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89년생 아주 기쁜 일이 생기는 구도이다. 행운의 숫자 : 47, 72</p>	<p>42년생 각각 달라서 일정하지 않으리라. 54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6년생 위험성이 보인다면 우회해야 마땅하다. 78년생 쿿노래가 나올 것이다. 90년생 예의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줘야 뒤따라 없다. 행운의 숫자 : 59, 54</p> <p>43년생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알자. 55년생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67년생 실효성 있는 개신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아울러 대처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91년생 집착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78, 73</p> <p>44년생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면 우순은 꼴이 되리라. 56년생 의견을 개진하라. 68년생 요인은 따로 있으니 허방 짚지 말아야 하느니라. 80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 92년생 의무를 다 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51, 04</p> <p>45년생 거부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만 할 것이다. 57년생 피해를 볼 수도 있다. 69년생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용이하다. 81년생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복잡다단하다. 93년생 별 것 아니니 대범하게 넘겨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0, 83</p> <p>34년생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법이다. 46년생 보완해야 할 처지이다. 58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70년생 단독으로 처분한다면 무리가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하라. 82년생 입장의 차이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46, 78</p> <p>35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47년생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59년생 현재에까지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1년생 소모적이라면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년생 예견한 대로 대응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95, 45</p>
---	--